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 조성 탄력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다음달 확정
전기사업법 등 각종 규제특례 적용
글로벌AI데이터센터 등 유치 기대

해남군이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지역 내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과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군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실무위원회를 열고 전국 11개 지자체 중 해남 등 7곳을 분산특구 후보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7곳은 실증 목표에 따라 신산업 활성화형(제주, 부산, 경기, 경북)과 수요 유치형(울산, 충남, 전남)으로 나뉜다.

분산특구는 지난해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기존 전기사업법과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규제를 완화해 에너지 신산업을 실증하는 지역이다.

해남군은 솔라시도 기업도시내 데이터센터센터 등 에너지다소비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세계 최대 규모 AI슈퍼클러스터 허브와 데이터센터 특화 RE100 산업단지를 조성, 'AI-재생에너지-첨단기술'이 집약된 신개념 도시모델을 제시했다.

영암 삼호 삼포지구에 해상풍력 배후단지화



해남군이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지역 내 산업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하늘에서 본 솔라시도. <해남군 제공>

계한 해상풍력 기지재클러스터 육성 전략도 포함된다. 분산특구로 지정되면 전기사업법,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각종 규제특례가 적용돼 전력 직거래, 에너지 신산업 실증 등 다양한 사업 모델이 가능해진다.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기 사용처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사실상 면제, 전력망 이용요금 등 전기료 인하,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전기 사용자간

직접거래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산업부는 6월 중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산특구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분산특구로 지정 되면 글로벌 첨단기업 유치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지역소멸위기 대응과 미래신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1% 가능성만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지난 22일 열린 영암 새실정원 개장식에는 박종필 전라남도 환경산림국장, 윤재광 영암부군수,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영암군 1호 민간정원 '새실정원' 문 열었다

축구장 2개 규모 사계절 테마공원

영암군은 월출산 자락 아래 제1호 민간정원 '새실정원'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전남도 제29호 민간정원으로도 이름을 올린 새실정원은 영암읍 용흥리 인근 1.46ha, 축구장 2개 규모로 조성된 자연과 여가가 어우러지는 쉼터다.

정원주인 정현중 씨와 농협회사법인 새실의 정서진 대표는 3대에 걸쳐 이 공간을 정성을 다해 가꿔왔다.

단풍이끼정원·동백암석정원·매화정원 등 사계절 테마형 공간은 철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연못·

전망대 등 조망 풍경은 아름다운 풍경으로 휴식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원은 입장료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개방형으로 운영된다.

정서진 새실 대표는 "새실정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이다. 자연 속에서 쉼과 여유를 느껴보고 싶은 이들을 위해 정원을 열었다"고 전했다.

영암군은 이번 개원을 계기로 도갑사, 기전랜드, '영암365 기(氣)운담:길' 등 가까운 관광자원과 새실정원을 연결하고 정원교육, 생태체험, 휴식 프로그램 등을 결합한 관광 콘텐츠를 마련할 계획이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진도군, '행복한 보배섬 엄마모임' 성황리 운영

부모들 정서·육아 통합지원 사업

진도군이 지난 3월부터 8주간 '2025년 행복한 보배섬 엄마모임' 1기를 운영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해당 모임은 임신부와 출산부, 영아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육아의 초기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지하는 정서·육아 통합지원 사업이다.

4월 말까지 진행된 1기 모임에서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산전·산후 교육을 비롯해 ▲쑥쑥 크는 아기 마사지 ▲오감 톡톡 촉감놀이 ▲광채수분크림 만들기 ▲꽃바구니 만들기 ▲영유아 하임리하법, 소화기 사용법 배우기 ▲진도개테마파크 내 아리랑 식물원 견학 등 다양한 체험형 활동이 진행됐다.

엄마와 아기 간의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면서 아기의 건강한 발달을 도울 뿐만 아니라 양육에 대한 엄마들의 자신감과 독립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임신·출산·육아의 과정에서 겪는 불안과

우울 등 정서를 공유하며 자조 모임의 필요성을 스스로 체감하게 한다.

모임에 참여한 한 군민은 "첫아이의 육아로 하루하루가 막막했는데, 모임 덕분에 같은 고민을 하는 엄마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었어요. 전문가의 조언도 큰 힘이 됐고 아이와 함께하는 놀이 시간 덕분에 저도 웃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라는 위로를 받았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보배섬 엄마모임은 진도군보건소 마음건강팀의 '굿맘 굿다디 디담돌 모임'과 연계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임신부와 출산부를 위한 통합적인 지원과 정서적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진도군보건소 관계자는 "행복한 보배섬 엄마모임은 지역 내 엄마들이 서로 지지하고 회복할 수 있는 정서적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2기, 3기 등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부모와 아이의 건강과 성장을 함께 돕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영광군, 민원실 돌발상황 대비 실전 모의훈련

영광군이 지난 22일 군수실에서 군수와 함께하는

민원담당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원실 비상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연계 실시했다. <사진> 이날 간담회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생생한 고충을 나누고 반복 민원 대응과 친절 행정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실질적 소통의 장으로 운영됐다.

간담회 직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둘러싼 민원인의 폭언 등 돌발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모

의훈련이 이어졌다.

훈련은 ▲초기 대응 ▲비상벨 작동 ▲피해자 보호 ▲민원인 대피 ▲가해자 제압 및 경찰 인계까지 단계별 절차가 실제처럼 진행됐다.

영광군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군민이 신뢰하는 민원실이 되도록 앞으로 현장 중심의 행정과 훈련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맛플무안몰, 고품질 양파 30% 할인 기획전

무안군이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맛플무안몰'에서 양파 30% 할인 기획전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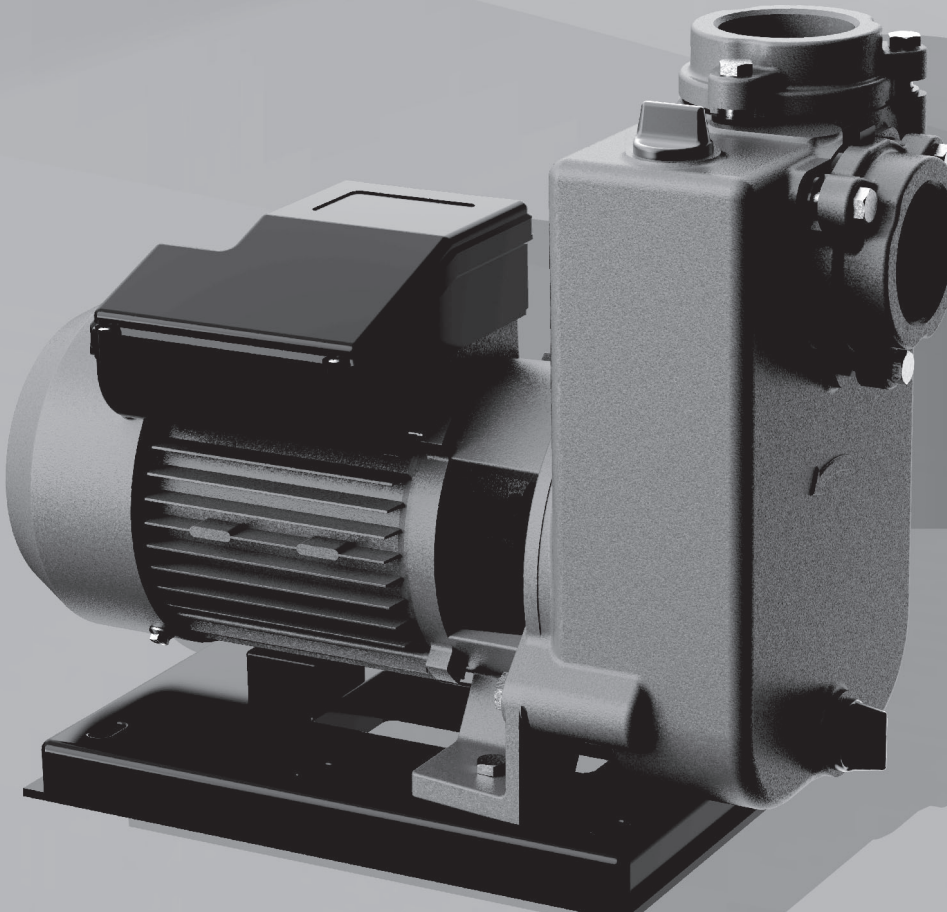
기획전은 양파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에 대응하고 양파 소비 촉진과 맛플무안몰 회원 3만 명 돌파를 기념한 2차 행사다. 1인당 1매씩 제공되는 양파 30% 할인쿠폰을 통해 최대 1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지난 4월 28일부터 진행된 햇양파 기획전은 전

국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어 단 이틀 만에 13톤이 판매되며 조기 마감됐다.

김산 무안군수는 "연초 양파 수입산 물량 급증과 6월 초 수확을 앞둔 중만생종의 높은 수확량이 예상돼 농가의 걱정이 클 것"이라며 "지역 농가들을 위해 고품질 무안 양파 소비 촉진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